

# 전북자치도, 노후 산업단지 대전환

### 노후거점산업 경쟁력강화사업 포함 9개 사업 3232억원 선정... 청년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청년 유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 단지가 미래 신성장산업의 발판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총 3,23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노후거점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지를 발굴했다.

특히, 전주 제1·2일반산단은 2025년부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 제1 일반산단

은 6월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후, TF팀을 구성해 산업부의 컨설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 제1·2일반산단은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 제1 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건립되며,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 관치 농공단지, 김제 순동 일반산단, 진안 연장 농공단지 등

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진안 연장 농공단지에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후 농공단지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낡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공단지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도내 산업단지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 후 20년이 지난 200만㎡ 이상의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구조도화계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백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등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5년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가 기업이 선호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한인비즈니스 민·관 합동 현장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나홀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도와 전주시, 소방, 경찰,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의 준비를 다했다.

이날 점검은 개막식이 열리는 삼성문화회관과 진수당 등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설물 안전, 화재 및 구급 대책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돌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회 시작 전까지 모든 안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관광협회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연 가운데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북자치도 관광산업 발전·도약 다짐

###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 성료... 관광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21명 시상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도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전북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로, 도와 업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조오익 전북관광협회장, 관광단체 및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 21명에게 시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 3대 메가이벤트 전략'을 주제로 한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의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북이 혁신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전북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통해 관광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황 교수는 전북이 미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며,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조오익 전북관광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가 여전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격려사에서 "전북의 관광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전북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출범과 함께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마련하여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산악 관광 휴양 벨트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식·치유 관광 등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브랜드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정읍시의회 임사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8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이도형 의원은 명예도로명 지정·활용에 도시브랜드를 높이자고 말했고, 송기순 의원은 정읍형 '생활민원 기동대' 설치·운영을 제안했으며, 최재기 의원은 서남권추도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정상철 의원은 도시기능 변화 등에 따른 맞춤형 순환버스 운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승현 의원은 지역 내 유희공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자고 했으며, 황혜숙 의원은 보건교의 역사 및 문화 유적 정비를 통해 잃어버린 정읍의 역사를 복원하자고 말했다.

안전 심의는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채택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안', 최재기·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는 이만재·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병역명부명예 유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가결한 뒤 임사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C형간염 퇴치 새 길 연다'

### 전북, 전국 최초 C형간염 인식개선 캠페인 선도 심포지엄 통해 도민 건강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C형간염 퇴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C형간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C형간염 환자 발생 수는 2020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관리율은 65.5%인 반면 치료율은 56.8%로 낮아 감염자가 치료를 받는 치료 연계가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과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간경화와 간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C형간염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자 C형간염 치료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지난 6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C형간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8월에는 대한간학회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C형간염 치료율 향상을 목표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퇴치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및 시·군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형간염 현황과 퇴치 전략(이창훈 전북대학교병원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바이러스 간염 발생 현황(이명옥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 △C형간염 퇴치 캠페인 추진 경과(곽진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형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바이러스 간염 퇴치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전담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성낙영 군산시보건소장, 인혜경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민희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가 참여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과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C형간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한인비즈니스대회 연계 도내 중기 해외시장 개척

### 22~23일 전주 그랜드힐스톤호텔서 대규모 수출 상담회 해외 유망 바이어 15개국 102개사 초청... 판로 개척 지원 생활·뷰티·미래산업 분야 등 179개 도내 중소기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 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해외 유망 바이어들과 도내 기업들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 전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가 협업체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상담회에는 베트남,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5개국 102개 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도내에서도 생활용품, 뷰티, 식품, 기계,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179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해외 판로 개척에 도전한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와 직접 만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이번 상담회에서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베트남·인도 통상 거점센터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맞춤형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오백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상담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보편적 가족복지 실현 제도적 근거 마련

### 도의회, 임승식 도의원 발의 '전북가족센터 설치' 조례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전북가족센터 설치'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 외에도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모든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가족서비스 기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 외에도, 전북가족센터가 광역기관으로서 수행할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시·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 등이 있다.

/이만호 기자

##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조례 제정

### 김성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지연 등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범위, 시기, 방법,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주의, 작업의 중지,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김희수 도의원, 학교예술강사지원 예산 정상화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삭감과 학교예술강사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 정상화를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중단에 뜻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 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 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